

외국인 학습자용 교재를 통해 본 남북 어휘의 동질성과 이질성

오선화 복단대학교

진엽호 복단대학교

† 이 논문은 국어교육학회 제3차 국제학술대회(2016년 6월 22~25일, 체코 카렐대학)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I. 머리말
- II. 연구대상 및 연구 방법
- III. 교재 어휘 어원별 비교 분석
- IV. 동질성과 이질성
- V. 이질화 원인
- VI. 맺음말

I. 머리말

한반도는 7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이념을 달리 한 결과 원래는 공통한 언어에 방언 차이 정도로만 느꼈던 남북의 언어가 점차 달라졌으며 거기에 서로 다른 어휘 규범까지 가세하면서 남북 언어의 차이가 심해졌다.¹ 그러나 현재 남북의 언어는 언어구조가 같고 의사소통에 크게 지장이 될 정도의 언어 구조 자체의 이질화는 없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운체계 면에서의 차이는 거의 없고 문법이나 어휘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어휘 면에서 비교적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권재일, 2015: 108). 이와 같은 남북 언어에 대하여 현재 남쪽은 언어 정책 면에서 둘을 모두 인정하는, 즉 두 언어를 동등하게 보고 합치는 언어 통합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은 한국어 자산을 풍부히 하는데 이롭기 때문이다.

이러한 언어의 통합은 궁극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언어 통합에 있는데 그럼 남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상대방의 언어를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가? 세대 차이는 존재하는가? 이질화를 느끼는 어휘는 어떤 부류의 어휘들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논문은 바

1 어휘 중 일반 용어는 35%, 전문 용어는 66%가 서로 다르다고 하니 그 어휘 차이를 가히 짐작할 만하다.

로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 조금이나 답변이 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남북에서 편찬된 외국인 학습자용 교재의 어휘에 대한 분석과 어휘 테스트를 통해 남북 어휘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밝히고 이질화 원인과 그 등급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듯 남북 어휘에 대한 테스트 작업은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고 밝히는 기초 작업이 되어 남북의 언어 통합에 이롭다. 또한 남북이 서로의 언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나아가 이질화 등급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사실 남북 언어에 대한 연구는 종래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북쪽의 언어관과 언어 정책, 남북 언어의 체계나 문법론에 대한 비교 분석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어국문학 영역에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누적되어 왔으며 남북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상호 비교하여 교육 소재나 제재 측면에서 비교한 연구는 한국의 국어 교육 분야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의 두 영역에 비하여서는 연구가 부족하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교재로서의 북쪽의 한국어 교재에² 대한 연구도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어 한국어 교육학의 기반을 넓히고 있다(강남옥, 2014: 2). 그러나 아직까지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어휘를 비교하고 어휘 테스트를 진행한 연구는 없는 듯하다. 그것은 연구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사료된다. 외국인 대상 남북의 한국어 교재는 그 사회의 언어와 문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매체로서 언어 비교 연구의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교재 어휘에 대한 테스트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³

2 이 논문에서는 기술의 편의상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재’를 남북을 아우르는 광의의 의미로 정의한다.

3 남북 어휘 차이는 아래와 같이 남북에서 편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재에서 나타난다.

- | | |
|---------------------|----------------------|
| (1) 파스를 붙이세요. | (4) 한 호실 동뭍니다. |
| (2) 어제 비행기표를 예매했어요. | (5) 오늘은 실사를 하는 날입니다. |
| (3) 집에 택배가 왔어요. | (6) 선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

II.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논문은 남북 외국인 학습자용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어휘를 대상으로 비교를 진행한다. 남쪽 교재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3)의 『서울대 한국어』(1A, 1B, 2A, 2B)를, 북쪽 교재는 김일성종합대학교에서 출판한 박재호(2009) 『조선말 회화 1』 (유학생용)을 선정하였다. 여기에 출현한 어휘는 각각 1582개와 1753개이다.⁴ 이 두 교재는 남북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에서 편찬한 외국인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교재로서 회화에 중심을 둔 초급 학습자용 교재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서울대 한국어』(1A, 1B, 2A, 2B)와 『조선말 회화』 (1)의 머리말은 책 편찬 의도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이 책들은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거나 초급 수준인 성인 학습자들이 매우 친숙한 일상적 주제와 기능에 대한 언어 구성 능력과 사용 능력을 익혀서, 기초적이거나 기본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서울대 한국어』(1A, 1B, 2A, 2B)

“우리나라에 오는 류학생들이 1년 동안의 예비반 단계에서 기초적인 조선말 회화 능력을 소유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조선말 회화1』 (류학생용)

위의 예문 중 (1)~(3)은 남쪽, (4)~(6)은 북쪽에서 쓰는 표현인데 밑줄 그은 단어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불가하다.

4 이들 어휘에는 “끝장을 보다, 불을 켜다, 구경거리가 많다. 게임을 하다”와 같은 관용구도 일부 섞여 있다. 관용구도 조사할 필요가 있기에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표 1. 남북 교재



남북 어휘의 비교 연구에는 모든 어휘가 그 연구대상이 될 수 있지만 편폭의 제한으로 여기에서는 남과 북에서 각각 편찬한 외국인 학습자용 초급 교재에 나타난 어휘를 대상으로 하였다. 비교 대상이 외국인 학습자용 초급 교재의 어휘라는 점에서 자료의 폭이 넓지 못하다는 단점도 있겠으나 이들 어휘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기초적인 어휘라는 점에서 그 비교, 분석의 의의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이 논문은 연구 방법 면에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먼저 교재의 어휘를 대상으로 어원별 비교 분석을 진행한다. 그리고 한국인과 조선인을⁵ 대상으로 어휘 테스트를 진행하여 남쪽에서는 북쪽의 어떤 부류의 어휘들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 북쪽은 남쪽의 어떤 부류의 어휘를 이해하지 못하는지 고찰한다.

어원별 비교 분석은 어휘 중 관용어와, 구를 제외한 남쪽 어휘 1251

5 남쪽에 사는 사람은 자신을 한국 사람이라 하고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조선 사람이라고 하기에 한국인, 조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개와 북쪽 어휘 1705개를 대상으로 남북 어휘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등 어원별로 분류를 하여 분석을 하였다.

다음 어휘 테스트를 하였는데 그 방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다. 한국인 3명에게 북쪽 교재에 나타난 어휘(1753개)를 보여주면서 모르는 어휘는 X 표기(예: 걸그럼)를 하고 알지만 자신이 쓰는 어휘와 다르다고 생각하면 O 표기(예: 날자<날짜>)를 한 후 바른 어휘를 적으라고 하였다. 반대로 조선인 3명에게 남쪽 교재에 나타난 어휘(1582개)를 보여주면서 똑같이 하도록 하였다.⁶ 여기에서는 X 표기와 O 표기를 한 어휘를 모두 차이가 나는 어휘로 간주한다.⁷ 세대에 따른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세대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였다. 학력에 따른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들 어휘가 외국인 학습자용 초급 교재 어휘라는 점에서 학력은 고려하지 않았다. 참고로 피험자는 모두 중학교 이상 학력 소지자이다.⁸

표 2. 피험자

피험자 출신 성명 나이	40대	20, 30대	10대
남쪽	전영의	이현호	정류진
북쪽	리남철	정혁	김주명

6 자신이 쓰는 어휘와 다른 어휘는 바르게 적으라고 했지만 합당한 어휘가 떠오르지 않아 적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7 남북 언어는 형태는 같으나 의미가 다르게 쓰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의미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8 어휘 테스트는 2016년 4월, 필자의 연구실에서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중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 중인 한국인과 조선인이다. 한국인의 직업은 각각 대학교 강사, 대학원생, 중학생이고, 조선인은 중국의 모 대학교에 유학중인 세 명의 유학생이다. 한국인 중 2명은 중국에 온지 1년 미만이고 1명은 중국에 온지 3년이 되어 간다. 조선인 세 명은 모두 중국에 온지 1년 미만이다.

Ⅲ. 교재 어휘 어원별 비교 분석

1. 어원별 분포와 특징

남북 어휘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등 어원별로 분류를 하여 분석을 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3 어휘 어원별 분포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단어 수	비율	단어 수	비율	단어 수	비율	단어 수	비율
남쪽	513	41.01%	472	37.73%	107	8.55%	159	12.71%
북쪽	732	42.93%	836	49.03%	22	1.29%	115	6.74%
합계	1245	42.12%	1308	44.25%	129	4.36%	274	9.27%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고유어는 남북이 모두 총 어휘의 40%를 조금 벗어나 전체 어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로 비슷하였다. 그리고 한자어는 남쪽이 더 많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북쪽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⁹ 한자어는 남북의 언어에서 그 비중이 높아 대략 6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비중이 45%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연구대상이 기초 어휘여서 고유어의 비중이 높고 한자어의 비중이 낮은 것과 관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외래어는 예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남쪽이 북쪽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혼종어도 외래어 비중이 큰 남쪽이 북쪽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를 그림으로 보이면 <그림 1>, <그림 2>와 같다.

9 북에서는 한자어에 있어서 많이 고유어로 다듬어 놓았다. 반면에 남에서는 북에서보다 한자어가 많이 쓰이며 자유스럽게 쓰인다. 총적으로 보면 북에서는 고유어를 많이 쓰고 남에서는 한자어를 많이 쓴다(전병선, 200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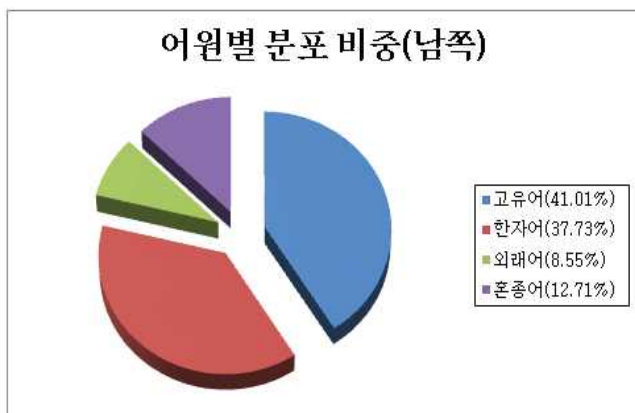


그림 1. 어원별 분포 비중(남쪽)



그림 2. 어원별 분포 비중(북쪽)

혼종어는 ‘한자어+고유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외래어’, ‘외래어+한자어’, ‘고유어+외래어’, ‘외래어+고유어’ 등의 6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바 어원별 분포에 대해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혼종어의 어원별 분포

	‘한자어+고유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외래어’ ‘외래어+한자어’		‘고유어+외래어’ ‘외래어+고유어’		합계
	단어수	비율	단어수	비율	단어수	비율	
남쪽	143	89.9%	9	5.7%	7	4.4%	159
북쪽	112	97.4%	3	2.6%	0	0%	115
합계	255	93.1%	12	4.4%	7	2.5%	274

혼종어에서 ‘한자어+고유어’, ‘고유어+한자어’의 비중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북쪽에서는 외래어가 적어 ‘고유어+외래어’, ‘외래어+고유어’에 해당하는 어휘가 출현하지 않았으며 다만 ‘한자어+외래어’, ‘외래어+한자어’에 한하여 3개의 어휘가 출현하였다. 바로 ‘국제통신센터, 인테리화, 프로그램 작성법’ 등과 같은 어휘들이다. 여기에서도 북쪽은 외래어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을 달리하면 남쪽은 외래어가 많이 쓰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같은 어휘 어원별 분포와 특징

두 교재를 비교해 본 결과 같은 어휘는 도합 448개였다. 이 어휘를 어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같은 어휘 어원별 분포

어원별 어휘 단어수 비율	고유어	한자어	혼종어	외래어
단어수	271	154	19	4
비율	60.49%	34.38%	4.24%	0.89%

같은 어휘에서 고유어가 60.49%를 차지하여 비중이 제일 높았고 그

뒤로 한자어, 혼종어, 외래어가 차례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외래어에서 동일 어휘가 제일 적게 나타났는데 ‘넥타이, 모스크바, 베이징, 택시’ 4개 어휘에 그쳤다.¹⁰ 이는 북쪽에서 외래어의 사용을 지양해서 생긴 결과이다. 통계 결과를 보면 남북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어휘 중에는 고유어가 가장 많으며 외래어가 가장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북의 언어에서 고유어가 기본이므로 남북 어휘의 단일화를 위해서는 고유어가 한자어화 되거나 외래어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함을 잘 보여준다. 동일 어휘의 어원별 분포 비중을 그림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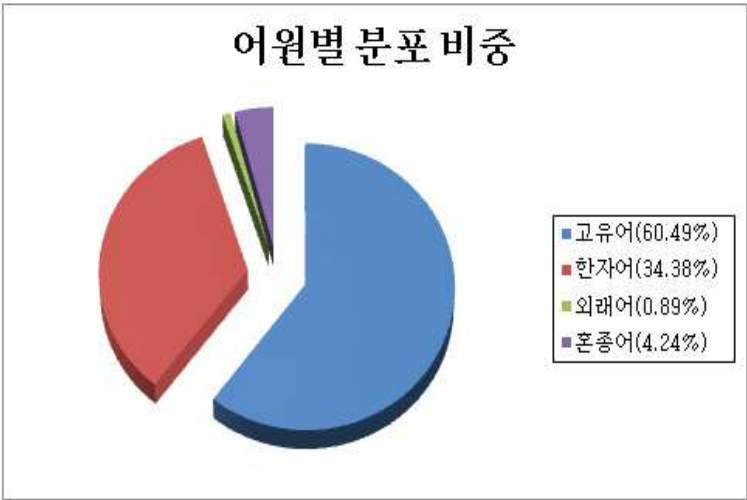


그림 3. 동일 어휘 어원별 분포 비중

IV. 동질성과 이질성

한국인은 북쪽 언어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있으며 조선인은 남쪽 언

¹⁰ 현재 남북의 외래어 표기법은 다르지만 이와 같이 표기법이 동일한 어휘도 존재한다.

어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인과 조선인에 대해 각각 어휘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1. 한국인에 대한 어휘 테스트

북쪽 교재의 1753개 어휘를 대상으로 한국인 3명(40대, 30대, 10대)에 대해 어휘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40대 피험자는 185개의 어휘에 한해서 그 어휘를 모르거나 남쪽과 쓰임이 다르다고 하였으며 30대 피험자는 255개의 어휘, 10대의 피험자는 329개의 어휘에 대해 그 뜻을 모르거나 쓰임이 다르다고 하였다. 이를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 6. 한국인

피험자/나이	전영의/40대		이현호/30대		정류진/10대	
동질성/이질성	동질성	이질성	동질성	이질성	동질성	이질성
단어수	1568	185	1498	255	1424	329
비율	89.45%	10.55%	85.45%	14.55%	81.23%	18.77%

우선 이와 같은 수치는 남북의 언어가 동질성이 더 많음을 보여주지만 이질성도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세대에 따른 이질화 양상을 볼 수 있는데 40대는 10.55%, 30대는 14.55%, 20대는 18.77%의 어휘가 이에 속한다.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북쪽의 언어를 잘 모름을 보여준다. 이질화에 해당한다고 표시를 한 어휘에 대해 빈도를 조사하여 보면 이질화 빈도 1인 어휘가 109개, 이질화 빈도가 2인 어휘가 105개, 빈도 3인 어휘가 150개이다.¹¹ 다시 말하여 1753개의 어휘 중 364개 (109+105+150)의 어휘가 이질화 어휘에 속하는데 총 어휘의 20.77%를 차지한다. 이를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11 피험자 3명이 X표기와 O표기를 한 어휘를 통계하여 한 명만 표기를 한 어휘는 이질화 빈도 1인 어휘로 간주하고 두 명이 표기를 하였으면 이질화 빈도 2인 어휘로 간주하였으며 세 명이 모두 표기를 한 것은 이질화 빈도 3인 어휘로 정하였다.

표 7. 한국인의 이질화 어휘 빈도

빈도 단어수 비율	빈도 0	빈도 1	빈도 2	빈도 3
단어수	1389	109	105	150
비율	79.23%	6.22%	5.99%	8.56%
비율	79.23%	20.77%		
합계	1753			

2. 조선인에 대한 어휘 테스트

반대로 남쪽의 1582개 어휘를 대상으로 조선인 3명(40대, 30대, 10대)에 대해 어휘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40대 피험자는 273개의 어휘에 대해서 그 어휘를 모르거나 쓰임이 남쪽과 다르다고 하였으며 20대 피험자는 256개의 어휘, 10대의 피험자는 140개의 어휘에 대해서만 그 뜻을 모르거나 자신의 쓰임과 다르다고 하였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차이가 적어져 북쪽의 젊은 세대가 윗세대에 비해 남쪽의 언어에 더 밝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남쪽의 젊은 세대와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 관심을 끌었다. 이를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 8. 조선인

피험자/나이	리남철/40대		정혁/20대		김주명/10대	
동질성/이질성	동질성	이질성	동질성	이질성	동질성	이질성
단어수	1309	273	1326	256	1442	140
비율	82.75%	17.25%	83.82%	16.18%	91.15%	8.85%

이질화에 해당된다고 표시를 한 어휘에 대해 빈도를 조사하여 보면 빈도 1인 어휘가 108개, 빈도 2인 어휘가 117개, 빈도 3인 어휘가

109개이다. 1582개 어휘 중 도합 334개의 어휘가 이질화 어휘에 해당하며 그 비율은 21.11%이다. 아래의 표 9와 같다.

표 9. 조선인의 이질화 어휘 빈도

빈도 단어수 비율	빈도 0	빈도 1	빈도 2	빈도 3
단어수	1248	108	117	109
비율	78.89%	6.82%	7.39%	6.88%
비율	78.89%	21.11%		
합계	1582			

<표 7>과 <표 9>를 비교하여 남북의 이질화 어휘 수를 살펴보면 그 수량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남에서 이질화를 느끼는 만큼 북에서도 이질화를 느끼고 있다. 비율에 있어서도 각각 20. 77%, 21. 11%로 나타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는 서로의 교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 관심을 끈 것은 남쪽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 이질화를 심하게 느끼고 있는 반면 북쪽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질화를 덜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북쪽의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에 비해 영어에 익숙하여 외래어에 능하다는 것 외에도 남쪽의 문화에 호기심을 갖고 알고자 하는 자세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¹²

아래에 빈도 3을 보인 어휘들에 한해 분류를 하여 이질화 원인을 살펴보려 한다. 북쪽의 150개 어휘와 남쪽의 109개 어휘가 빈도 3을 보인 어휘에 해당되었다. 그 어휘를 나열하여 보이면 <부록 1>, <부록 2>와 같다. 아래 이질화된 어휘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질화 원인을

12 확인된 바는 없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경우 미디어를 통한 남쪽의 문화에 대한 접촉도 있을 수 있다. 이는 남쪽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연관된다. 반면 북쪽 언어는 옛말식이라는 생각에 남쪽의 젊은 세대는 북쪽 언어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다.

알아보도록 한다.

V. 이질화 원인

남북 어휘의 이질화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주요하게 남북 문화의 차이(외래어 포함), 어문 규범 차이, 다듬은 말과 방언의 승격화로 생긴 차이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¹³

1. 남북 문화의 차이

서로 다른 문화는 서로 다른 언어에 표현되며 서로 다른 언어에는 서로 다른 문화가 반영된다. 남북은 다른 지역, 다른 사회제도, 다른 외래문화의 영향으로 문화 차이가 생겼으며 이런 문화 차이는 바로 언어의 차이를 가져왔다. 언어는 그 사회의 문화에 맞게 쓰이고 있다. 남북은 현재 서로 다른 사회 체제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념에 관계되는 말들이나 사회생활을 가리키는 말은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북쪽의 문화어에는 사회주의 이념이나 북쪽 특유의 사상, 제도, 생활을 가리키는 것이 많다. 정치 분야의 ‘선군령도, 선군정치, 인덕정치, 김일성화, 김정일화’, 문화 분야의 ‘공화국심판원, 공훈체육인, 공훈방송원, 인민방송원, 인민체육인, 체육촌, 3.8국제부녀절’, 경제 분야의 ‘용해공, 의료일군, 기계공장, 지하철도, 지하철동차’ 등 사회주의 생활을 나타내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와 같은 어휘들은 남쪽에서 단연 이질화를 느끼는 어휘들이다. 뿐만 아니라 비록 사전에는 있지만 일상생활

13 기존의 논의들은 주로 ‘형태가 다르고 뜻이 같은 말’, ‘형태는 같고 뜻이 다른 말’, ‘남북에서 새로 생겨난 어휘’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의미를 고려하지 않기에 남북에서 새로 생겨난 어휘, 형태차이, 다듬은 말과 방언의 승격화로 생긴 차이로 나누어 살펴본다.

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휘와 북쪽에서만 쓰는 어휘도 존재한다. ‘보시기, 퍼그나, 곧추, 격토, 대소한, 맞춤히,¹⁴ 정주년’은 사전에는 있지만 남쪽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어휘들이며 ‘에스키모, 무더기비, 선기, 실사, 국수꾸미’는 북쪽에서만 쓰이는 어휘들이다.

마찬가지로 남쪽의 표준어에도 제도 용어, 지명, 사회생활 면에서 북쪽과 차이 나는 어휘들이 존재하는데 조선인은 이와 같은 어휘에 대해 이질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정치 분야의 ‘대통령, 조선시대’, 문화 분야의 ‘고시원, 국립국악원, 동호회, 다도, 맛집, 영화제, 택배, 택배기사, 노래방, 떡볶이, 민박, 하숙집, 경찰관, 동아리, 두통약, 라면, 상담원, 피시방, 한옥, 한옥 마을, 한복, 한정식, 회사원, 떡갈비, 세제, 수료식, 수산시장, 주황색, 녹두색, 연두색, 초등학교’, 경제 분야의 ‘월세, 환불하다, 예매하다, 전기 요금, 전세, 현금 인출기, 회비’ 등과 같은 어휘가 바로 그것이다. 또 남쪽의 표준어를 살펴보면 외래어 범람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외래어 사용이 증가하였다. ‘가이드, 게스트하우스, 돈가스, 룸메이트, 리모컨, 케이크, 콘도, 콘서트, 퀴즈, 키워, 팝콘, 체크무늬, 휴대폰, 테니스, 미팅, 센터, 볼펜, 슬라이퍼, 인터뷰, 이메일’ 등 외래어는 남쪽 사람들 일상생활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¹⁵ 이런 외래어 수용에 대한 차이로 남북의 이질화가 더욱 심해졌다.¹⁶

2. 어문 규범의 차이

어문 규범의 차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두음 법칙에 의한 차이이다. 북쪽에는 광복 후 두음 법칙 현상을 없애는 것을 규범으로 정하

14 북쪽의 과생법에서 부사화 접미사 ‘히’의 사용으로 어색한 감을 주는 경우가 있다. 남북 언어는 모두 형용사류가 부사로 전성될 때 접미사 ‘-이’, ‘-히’ 등을 어근에 결합시키는데, 북에서는 이때 어근의 특질과는 관계없이 접사의 결합이 자유롭다.

15 그에 반해 북쪽에서는 외래어 수입이 적은 것도 있었지만 외래어에 대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고유어로 다듬어 쓰려고 한다.

16 지명도 남북이 이질화를 느끼는 하나의 요소이다.

였다. 북쪽의 발음법 규정에 따르면 한자어는 음절마다 한자어의 현대 소리에 따라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ㄹ’은 모든 모음 앞에서 ‘ㄹ’로, ‘ㄴ’은 모든 모음 앞에서 ‘ㄴ’으로 발음한다. 그에 반해 남쪽의 언어는 두음법칙을 준수한다.¹⁷ 북쪽 교재의 ‘녀대학생, 녀동생, 녀자방 송원, 녀자배구경기, 녀자용, 녀조카, 녀려해주다, 락하산, 란간, 래일, 랭동기, 랭면, 러관, 러행, 리용, 리해, 록화기, 료리사’ 등 어휘는 한자음 그대로 표기를 한다. 그러나 남쪽 교재는 ‘여성적이다, 여행, 여행 상품, 여행사, 여행지, 연락처, 연세, 연휴, 냉면, 내일, 내년, 냉장고, 녹색, 농구’ 등과 같이 두음법칙을 지킨다.

그 다음은 사이시옷에 의한 차이도 심각하다. 북쪽에서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쪽에서는 고유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와 고유어와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북쪽의 ‘저가락, 저가락질, 쇠바줄’, 남쪽의 ‘나뭇잎, 콧물’ 등 어휘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 외에 외래어의 표기에도 남북은 차이가 있다.¹⁸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는 1940년대에 조선어학회에서 마련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모두 따라 썼다. 그러나 남북이 각기 다른 정부를 세운 뒤에는 언어 정책이 달라지고 주로 접하는 외국어도 달라져 외래어 표기법에 큰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외래어 표기법의 가장 큰 차이는 남쪽에서는 외래어를 표기할 때 ‘ㄱ, ㄷ, ㅁ, ㅂ, ㅅ’ 등 된소리를 파열음 표기에 쓰지 않는데 북쪽에서는 된소리를 쓴다는 것이다. 그 밖에 외래어 수입원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기도 한다. 남쪽에서는 주로 접촉하는 외국어가 영어이므로 영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북쪽에서는 러시아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가령 기호 ‘-’를 북에서는 미누스(로어)라 하고

17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고 한자음 ‘랴, 러,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으며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

18 북쪽에서는 외래어를 기피하여 그에 해당하는 신조어를 만들어 쓴다. 예를 들어 ‘썸브’를 ‘처넣기’하라고 한다.

남에서는 마이너스(영어)라고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외래어 표기법이 다름에 따라 같은 외국어를 외래어로 적을 때 다르게 표기된 예는 다음과 같다.

로씨야(러시아), 버스(버스), 컴퓨터(컴퓨터), 아파트(아파트), 샤와하다(샤워하다), 에스빠나어(스페인어), 캐나다(캐나다), 콜라(코카콜라) T 샤쓰(티셔츠), 주스(주스), 재주(재즈)

(*괄호 안에 표시된 것이 남쪽의 표준어임)

그리고 북쪽에서는 “어간의 모음이 ‘ㅣ, ㅐ, ㅑ, ㅓ, ㅕ, ㅗ’인 경우와 어간이 ‘하’인 경우에는 어미를 ‘여’로 적도록 하여 남쪽과 다르다. 그리하여 남쪽어의 ‘비어 있다’는 북쪽에서 ‘비여 있다’로 ‘되어 있다’는 ‘되여 있다’로 표기된다.

그 외에도 일꾼(일꾼), 잠깐(잠깐), 날자(날짜), 색깔(색깔)등과 같이 남쪽에서는 경음으로 표기되는 어휘 가운데 북쪽에서는 평음으로 표기되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옛말 보존, 모음교체 등에 따라 형태 차이가 존재하는 어휘들도 있다.¹⁹⁾

일찌기(일찍이), 드디여(드디어), 도리어(도리어), 태어나다(태어나다), 우레(우뢰), 폐(폐), 강강술래(강강수월래), 안해(아내), 쌍가풀(쌍거풀), 태어나다(태어나다), 설거지(설겅이), 부딪히다(부딪치다), 예전(이전), 건너다(건드다) 등

(*괄호 안에 표시된 것이 남쪽의 표준어임)

마지막으로 조어법 차이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말들도 있다. 남쪽에서 사역형을 만드는 형태소로 사용되는 ‘-우-, -추-’가 북쪽에서는 보이지 않고 대신 ‘-이우-’라는 형태가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이우-’형을 가진 어휘에서 남북의 차가 심하게 나타난다. 북쪽 교재에서 ‘놀라게 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놀래우다’가 나타났다.²⁰⁾

19 이는 그 말의 어원에 충실하기 위한 표기로 보이는데 이는 북쪽의 철자법이 원칙적으로 형태주의를 따르는 것과 상통한다(김정숙, 1989: 297)

20 ‘바래우다, 자래우다, 찢리우다, 가리우다’와 같은 예도 여기에 해당된다.

3. 다듬은 말과 방언의 승격으로 인한 차이

북쪽의 말 다듬기는 문화어 운동의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 과거에 한자어로 된 공통 어휘였던 것이 고유어 또는 한자어로 바뀌면서 달라진 것이 상당히 많다. 북쪽에서는 언어를 혁명의 무기로 보고 섬멸전의 방법으로 다그쳤기에 어휘의 변화가 많이 생기었다. 남쪽에서도 국어순화를 하고 있으나 남쪽에서는 바꾼 말을 아껴 활용하기를 바라는 권장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²¹ 북쪽의 말 다듬기는 이질화를 가져온 하나의 원인이 된다. 말 다듬기를 한 어휘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기다림칸, 건늬길, 손짐, 원주필, 단물, 나들표, 머리받기, 선수차기, 차값, 과일 단물, 손님맞이방, 물음칸, 손짐 등

그리고 북쪽의 문화어에는 상당수의 북쪽 지방 방언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북에서는 많은 방언 어휘를 문화어에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자료에 따르면 약 4,000여 개의 어휘들이 북부 방언에서 문화어가 되었다고 한다. 교재에 출현한 어휘는 다음과 같다.

우정, 인차, 녹다, 남새, 닭알, 무즙, 손우 등

이렇듯 위에 제시한 어휘들은 교재에 나타난 이질화 어휘들이다. 남북 문화의 차이, 어문 규범의 차이, 북쪽의 말 다듬기 운동과 방언의 승격 등 여러 원인 중 이질화를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3인 남북 어휘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빈도 3인 남쪽 어휘 109개 중에는 외래어가 51개로 이질화 어휘의 절반을 차지하여 외래어가 이질화의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남북은 표기법 등 문법 규범 차이에 의한 이질화도 존재하나 피험자가 해당 어휘를 자신이 쓰는 어휘로 고쳐 적을 수 있는 것으로 미루어

21 비록 남쪽의 국어순화와 북쪽의 말다듬기의 결과가 거의 같아졌다고(김민수, 1996: 55) 하지만 남쪽에서 얼마만큼 순화된 어휘를 쓰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보아 남북이 서로 어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남쪽에서는 주요하게 북쪽의 사회제도와 문화차이로 이질화를 느끼고 있고 북쪽에서는 남쪽의 외래어 사용과 신조어의 출현으로 이질화를 느끼고 있었다.

VI. 맺음말

이 논문은 남북 교재 어휘의 어원별 분포를 살펴보고 한국인과 조선인의 어휘 테스트를 진행하여 남북 어휘의 이질화 정도를 밝히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위의 서술한 내용을 정리하여 결론을 대신하려 한다.

먼저 어원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두 교재 고유어의 비중은 41.01%(남), 42.93%(북)으로 나타나 비슷하였다. 그러나 한자어는 북쪽의 교재가 49.03%로 나타나 남쪽의 교재 37.7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예상대로 외래어와 혼종어는 남쪽 교재가 각각 8.55%, 12.71%로 나타나 북쪽 교재 1.29%, 6.7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다음 어휘 테스트를 통해 보면 동질성과 이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동질성이 이질성에 비해 크다. 그러나 기초적인 어휘 중 20% 내외 어휘에 대해 이질화를 느낀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남북 어휘의 단일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학계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해준다. 남북이 이질화를 느끼는 어휘는 그 수량이 거의 비슷하였다. 이는 서로의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이다. 남쪽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북쪽의 어휘에 대해 이질화를 더 느끼는 반면 북쪽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남쪽의 어휘에 대해 이질화를 덜 느끼고 있어 이질화가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예상을 빚나갔다. 이는 하나의 긍정적인 메시지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질화 원인을 남북 문화의 차이, 어문 규범의 차이, 북쪽의 말 다듬기 운동과 방언의 승격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남쪽은 문화 차이에 의한 이질화가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기법 등

어문 규범의 차이에 의한 이질화도 심각하나 남북이 서로 어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언어는 시대의 발전에 따라 부단히 변화, 발전한다. 남북의 언어도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리라 생각한다. 같은 민족의 동일 언어가 이질성을 줄이고 동질성을 넓혀나가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한민족의 책임이다. 이를 위해선 서로의 언어에 대해 관심을 갖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필요하겠다. 더 많은 남북의 피험자를 선정하여 조사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추후 더 폭넓은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2016.08.01. 투고되었으며, 2016.08.08. 심사가 시작되어 2016.09.04.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강남옥(2014), 「북쪽의 외국어로서의 조선어 교재에 대한 연구 현황과 전망」, 『한국언어문화학』 11(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25.
- 강보선(2009), 「국어교육에서의 북쪽 어휘 교육 연구」, 『국어교육연구』 45, 국어교육학회, 1-34.
- 고영근(1999), 『북쪽의 언어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권재일(2015), 「남북쪽 어휘 단일화」, 『새국어생활』 15(4), 국립국어연구원, 107-124.
- 김광수(2004), 「남북쪽 및 중국조선족 언어에 반영된 문화현상」, 『중국조선어문』 3,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10-15.
- 김민수(1996), 「남북언어의 비교: 통일후의 한민족의 교육을 위한 제언」, 『강남어문』 9, 강남어문학회, 53-67.
- 김선철·김건희(2009), 「남북쪽 교과 용어의 어휘론적 차이에 대하여」, 『언어학』 55, 한국언어학회, 27-59.
- 김정숙(1989), 「남북쪽 어휘 비교」, 『어문논집』 28, 안암어문학회, 291-303.
- 문금현(2004), 「남북쪽 어휘의 동질성과 이질성」, 『어문연구』 32(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5-61.
- 박시균·권병로(2003), 「남북쪽 언어에 대한 비교 연구 —발음과 어휘를 중심으로」, 『국어문학』 38, 국어문학회, 29-54.
- 박재호(2009), 『조선말 회화 1』 류학생용,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3), 『서울대 한국어 1A, 1B, 2A, 2B』, 문진미디어.
- 전병선(2002), 「남북어휘 비교 연구」, 『중국조선어문』 6,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4-8.
- 최용기(2007), 「남북의 언어 차이와 동질성 회복 방안」, 『국학연구』 10, 한국국학진흥원, 199-228.
- 최유숙 외(2015), 「남북 언어 통합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다문화콘텐츠연구』 18,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395-426.
- 최윤갑·전학석(1994), 『중국, 조선, 한국에서의 조선어차이에 대한 연구』, 연변인민출판사.

초록

외국인 학습자용 교재를 통해 본 남북 어휘의 동질성과 이질성

오선화 · 진엽호

이 논문은 남북 어휘에 대한 비교와 어휘 테스트를 진행하여 남북 어휘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질화 원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한 어휘는 남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초급 교재의 것으로 한정하고 남북의 피험자를 각각 선정하여 언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어휘 어원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남북 교재 모두 고유어가 전체 어휘에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한자어는 북쪽이 남쪽보다 더 많았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외래어와 혼종어는 남쪽이 북쪽보다 훨씬 많았다.

다음 어휘 테스트를 진행해 본 결과 남북은 외국인 대상 초급 교재 어휘 중 약 20~21%의 어휘에 대하여 이질화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남쪽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북쪽의 어휘에 어두운 반면 북쪽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남쪽의 어휘에 밝음을 보아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질화 원인을 크게 남북 문화 차이, 어문 규범의 차이, 다듬은 말과 방언의 승격화로 생긴 차이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남북의 어휘 이질화는 남북 문화 차이에 의한 이질화가 제일 큰 것으로 보였으며 문화 차이 중 외래어에 의한 이질화가 제일 심했다. 표기법 등 어문 규범의 차이에 의한 이질화도 존재하나 남북이 서로 어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핵심어 남북 한국어, 한국어 교재, 어휘, 동질성, 이질성

ABSTRAC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Vocabulary by Korean Textbooks

Wu Xianhua • Chen Yehao

This paper is analyzed the differenc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vocabulary and it's taken aim at the causes of those differences, through comparisons and test surveys between North and South vocabulary.

First of all, to research from the vocabulary derivation, it is found that the native tongue is occupied the highest percentage in both North and South, and there are more sino-Korean words in North than that of South. And as expected, there are more foreign words and Hybrid words in South than that of North.

Second, through the vocabulary test, it is found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among the basic vocabulary and it accounts for 20~21 percent of the whole basic vocabulary. The younger generation in South knows less vocabulary of North, while the younger generation in North knows more vocabulary of South.

Finally, it is divided into three factors which causes these differences. The difference caused by new appeared vocabulary is the largest in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vocabulary, especially, the difference caused by foreign words are the strongest. There also exists the difference of spelling, but it doesn't influence on understanding of the vocabulary.

KEYWORDS North and South Korean, Korean textbooks vocabulary, similarities, differences

<부록 1>

1 3.8국제부녀절	51 랭동기	101 스케트
2 3대혁명전시관	52 랑면	102 습관을 붙이다
3 5월1일경기장	53 러관	103 아빠트
4 강좌장	54 러행	104 양각도
5 건느다	55 력사	105 에스키모
6 건늬길	56 력사학부	106 영생탑
7 걸그림	57 련못동	107 외국문서적
8 격토	58 련습	108 용해공
9 고뿌	59 련습공	109 옷걸개
10 곧추	60 련사	110 유희장
11 공화국	61 련차	111 올밀대
12 공화국심판원	62 련차원	112 음악무용종합공원
13 공화국창건기념일	63 련수증	113 의료일군
14 과일남새상점	64 련하	114 이가 쏘다
15 과일단물	65 로동자	115 인덕정치
16 과학자려관	66 록음기	116 인민방송원
17 관성렬차	67 록화기	117 인민체육인
18 국수꾸미	68 론문	118 인차
19 기계대학	69 료리	119 인테리
20 기다림칸	70 료리사	120 인테리화
21 김일성화	71 룡남산	121 일없다
22 김정일화	72 류학생	122 잠간
23 나들다	73 룡라다리	123 장수봉
24 나들표	74 룡라도	124 저가락
25 나마	75 리용	125 저가락질
26 날자	76 리해	126 접대원
27 남동무	77 만(앞)	127 정주년
28 남새	78 맞춤히	128 조선력사
29 남자방송원	79 먼저차기	129 주사지시표
30 녀대학생	80 무궤도	130 주작봉
31 녀동무	81 무궤도전차	131 준급행
32 녀동생	82 무더기비	132 중경기관
33 녀자방송원	83 물음칸	133 찬국
34 녀자배구경기	84 병력서	134 창광거리
35 녀자용	85 보통강	135 처넣기
36 녀조카	86 봉(소문봉)	136 천리마거리
37 녀려해주다	87 봉사일군	137 청류다리
38 놀래우다	88 빠스	138 청진

39 녹다	89 산원	139 체육촌
40 다리란간	90 상급침대	140 최우등
41 닭알	91 서해갑문	141 치열하다
42 대성산	92 선군	142 콤퓨터
43 대소한	93 선군령도	143 탄부
44 대학습당	94 선군정치	144 태양절
45 더운국	95 선거	145 퍼그나
46 도리어	96 손님맞이방	146 평양항공역
47 도일보사	97 손우	147 프로그램
48 락하산	98 손집	148 프로그램작성법
49 란간	99 손칼	149 혁명렬사릉
50 래일	100 송도원	150 호(2호교사)

<부록 2>

1 N서울타워	38 분실물 센터	74 유학
2 가위바위보	39 블라우스	75 유행이다
3 가이드	40 블로그	76 이상형
4 가이드북	41 비어 있다	77 이용하다
5 강강술래	42 선글라스	78 이유
6 게스트하우스	43 세제	79 인사동
7 고속버스 터미널	44 셔츠	80 재즈
8 고시원	45 소개팅	81 제스처
9 국립국악원	46 쇼핑하다	82 조선 시대
10 나뭇잎이 떨어지다	47 수도 요금	83 주스
11 남이섬	48 스웨터	84 중남미
12 내년	49 스카프	85 캐나다
13 내일	50 스케줄	86 커피숍
14 냉면	51 스쿠버 다이빙	87 케밥
15 냉장고	52 슬리퍼	88 케이크
16 노랑진	53 아파트	89 코미디 영화
17 녹색[초록색]	54 안약	90 코엑스몰
18 농구를 하다	55 에스프레소	91 콘도
19 뉴스	56 여성적이다	92 콘서트
20 다도	57 여자 친구	93 콧물이 나다
21 달걀	58 여행	94 퀴즈
22 데이트하다	59 여행 상품	95 키위
23 독일-독일 사람	60 여행(을) 하다	96 태국
24 돈가스	61 여행사	97 태어나다

25 동호회	62 여행자 보험료	98 택배
26 드라마	63 여행지	99 택배 기사
27 라디오	64 여행하다	100 택시 정류장
28 라틴 댄스	65 연락처	101 텔레비전
29 룸메이트	66 연락하다	102 팝콘
30 리모컨	67 연세	103 패키지여행
31 리포트	68 연휴	104 펜션
32 맛집	69 영화제	105 프리포즈
33 무릅	70 오피스텔	106 피자
34 뮤지컬	71 우체국	107 한국말
35 미터	72 원룸	108 호주-호주 사람
36 박스	73 월세	109 환율
37 번지 점프		